

지역 매 아 리

어버이날 정훈희&이자연 콘서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정훈희 & 이자연 콘서트가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무대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모하여 선정된 문예회관기획공연의 일환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이번 공연을 통해 웃음과 재미, 감동의 무대로 부모님과 온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구이생활문화센터 시설 정비

완주군 구이면 생활문화예술 공간인 구이생활문화센터(관장 안연실)가 2018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8일 구이면에 따르면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공간 이용 활성화 및 특성화 프로그램과 센터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반 확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지원사업 선정으로 구이생활문화센터는 '같이 높이는 가치'라는 사업명으로 진입로부터 야외무대 주변을 정비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같이 높이는 가치' 프로그램은 주민과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내달부터 시작한다.

/완주=이중복 기자

백구면 주민자치위 5월 월례회의

김제시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은희)는 지난 4일 백구면사무소 2층 주민자치위원회회의실에서 5월 월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달 백구소공원에서 개최한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벚꽃 바자회 행사에 따른 결산보고 및 백구면 특색사업인 보리재배사업에 따른 협의안을 가지고 2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조은희 위원장은 "꽃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벚꽃바자회 행사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잘사는 백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바자회로 마련된 기금은 백구면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목효마을 부체도로 설치

소음·교통 불편 호소... 국민권익위 주재 현장조정회의 협의안 도출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진~우이 건설공사로 소음과 교통 불편을 호소한 완주군 용진을 목효마을에 청신호가 켜졌다. 완주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민대표, 익산지방국도관리청, 완주군, 건설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부체도로를 연결하기로 조정협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마을 주민들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교차

로를 설치하거나 어린이 통학안전 확보를 위한 부체도로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 교차로 간격규정 및 경제성 등으로 교차로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에 따라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부체도로 연결 의견으로 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익산지방국도관리청 도로계획과장은 "민원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비 확보와 부체도로를 연결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사인 범양건설 현장대리인도 "견실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중연 완주군 경제안전국장장은 "현장 조정을 위해 지역주민,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이장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노력해 일관한 협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완주군에서도 행정절차 등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지역과학기술 활성화 꾀한다

한국과총 전북연합회 업무협약... 과학기술 발전·인재육성 협력

완주군이 지역의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융복합 인재육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내딛었다.

완주군은 박성일 군수와 김성조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회장(이하 한국과총 전북연합회)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과학기술 발전과 과학인

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이뤄진 업무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완주군의 과학기술과 산업육성을 위한 공동연구와 현안 이슈 발굴 추진,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와 학술활동 등 지역과학기술 발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한국과총

전북연합회는 농자지역아동센터(고산면 소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까지 12회에 걸쳐 드론 활용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조 회장은 "본 회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기술관련 교수와 단체들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완주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술포럼과 과학특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권오석 도의원 예비후보, 출마 공식화

민주평화당 권오석(46) 도의원 예비후보가 완주 제2선거구 도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예비후보는 8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 지선을 통해 전북도민과 완주군민의 열망인 아래로부터 적폐청산을 위해 저 권오석의 모든 것을 던지고자 한다"

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를 위해 권 예비후보는 전북도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제고해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인한 도민세금의 낭비를 막아내고, 청년 어르신 기본소득 지급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민수당 지급정책을 마련, 모두가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고 약속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자 희생 방식의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불법 과점법 철폐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장덕상 도의원 후보, 복지격차 해소정책 도입 주장

장덕상 도의원 후보(민주평화당, 김제시 1선거구)는 '지역평등'은 균형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 격차뿐 아니라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데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이 과감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덕상 후보는 "수도권에서는 청년

수당을 도입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전북에서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 노인들은 전철도 무료로 이용하지만 실제 교통약자인 농촌 노인들의 교통복지는 제자리걸음이다"며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수도권과 지방의 복지격차 해소 방안부터



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행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후보는 "소득 격차뿐 아니라 '도시노인 빈곤율은 7%인데 비해 농촌 노인은 22.9%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김제여자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직접 만든 방양갱 30박스를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다.

정성스레 만든 어버이날 방양갱 나눔행사

김제자원봉사센터·금성여중, 복지시설에 30박스 전달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정창섭)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김제여자중학교(교장 심경무) 학생들과 함께 직접 만든 방양갱 30박스를 지역 내 경로당 및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행사에 참여한 김제금성여자중학교 3학년 4반 학생들은 청소년 자원봉사 기획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자원봉사 기초(소양) 교육을 이수하였고, 본인들이 직접 어르신들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자 '영양만점 방양갱 만들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상반기 중 지역 내 청결하지 못한 곳을 찾아 환경정화활동을 2회 추진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소하지만 쉽고 재미난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가슴 뿌듯함을 느꼈으며, 내 손으로 처음 양갱을 만들었다

는 기쁨과 함께 이 양갱을 받고 행복해 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똥글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다짐을 했다.

한편 이번 청소년 자원봉사 기획프로그램은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이기선) 지원으로 관내 청소년들의 시각을 통해 참신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의무봉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참된 참여로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함이다.

정창섭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장은 "지역 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기획프로그램을 통해 특목 특이는 아이디어와 실천적 참여로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눔 의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내달 2일 종료

김제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중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6월 2일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 중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이다.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가 양성과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반영된다.

단 농지조성 행위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사업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분할 또는 등 록전환측량상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이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공원녹지과(063-540-3225)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임시특례 기한은 6월 2일까지며, 6월2일이 토요일인 만큼 6월1일 금요일까지 신고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 산지 양성회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조치로 양성화할 토지의 소유자는 기한 내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지력중 휘트
국제대회 디슈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지력 휘트
동계내외 국기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력중 휘트
국기대표 코치 역임 (인)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삿포로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 휘트